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 200만 원 미만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급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취업자 수가 많은 업종은 음식점업이었다.



▲ 올해 상반기 가장 취업자 수가 많은 업종은 음식점이며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다. 사진=shutterstock

18일 'KBS'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4월 기준)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2,150만 6,000명 가운데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25.3%를 차지했다.

1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9.4%, 100만 원~200만 원 미만은 15.9%로 1년 전보다 각각 0.6%p, 3.9%p씩 줄었다.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은 35.1%, 300만 원~400만 원 미만은 19.5%, 400만 원 이상은 20.1%로 나타났다.

산업대분류별로 보면 임금 100만 원 미만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27%)이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4.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3%) 순이었다.

반면, 400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2.9%)이었다. 이어 금융 및 보험업 (41.1%), 정보통신업(39.6%)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점업이었다.

통계청이 전체 취업자 2,807만 8,000명을 232개 산업 소분류별로 분석한 결과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156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년 뒤 40% '나 혼자 산다'



▲ 고령층 중심의 1인 가구가 급증해 30년 뒤엔 5가구 중 1가구가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될 전망이다. 사진=shutterstock

30년 뒤 한국은 다섯 집 중 두 집 꼴로 가족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39.6%)가 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전날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0~2050년'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50년 1인 가구 수는 906만여 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2020년 648만 가구보다 258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전체 가구 대비 비중은 31.2%에서 39.6%로 8.4% 포인트 늘어나 5가구 중 2가구가 1인 가구로 구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20년 22.4%에서 2050년 49.8%로 증가한다. 이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7.8%에서 20.4%로 확대된다. 1인 가구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급증해 30년 뒤엔 5가구 중 1가구가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가구주의 중위연령도 2020년 52.6세에서 2050년 64.9세로 12.3세 높아진다.

가구원 수도 대폭 감소한다. 전국 평균 가구원 수는 2020년 2.37명에서 2050년 1.91명으로 줄어든다. 세종 2.1명, 경기 2.0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평균 가구원이 2명도 채 안 될 전망이다.

한국의 총가구수는 2020년 기준 2073만 1,000가구로 추산됐다. 가구수는 2039년에 2,387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점 줄어 2050년 2,284만 9,000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집값, 10년 4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률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빙하기에 가까운 거래 절벽이 아파트값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



▲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shutterstock

20일 '서울신문'이 한국부동산원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은 직 전주 대비 0.28% 하락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래 최대 하락률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0.27% 떨어졌다. 이는 2012년 6월 11일(-0.36%)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이다.

경기, 인천 아파트값도 각각 0.39%, 0.41% 하락하는 등 낙폭이 가파르다.

이대로라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 역시 역대 최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이달 19일 기준 555건으로 지난해 9월(2,691건)의 약 5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릉전세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셋값도 추락하고 있다. 전국(-0.31%)·수도권(-0.41%)·지방(-0.22%)·서울(-0.30%) 모두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급매물 위주의 하락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매물가격 하향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 하락이 심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매수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